

[종합·해설]

공무원이 지방의원 평가 “논란”

광주시공무원노조 “견제·감시 위해 도입”

시의회 “노조, 시청간부 홍위병 전략 우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감사·견제기구인 광주시의원에 대해 평가제를 도입,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 활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광주시 간부들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과 광주시 간부간 공무원 자질을 둘러싼 설전,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유급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한 것 등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 양상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까지 파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과 연대,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의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서 의정활동을 평가, 최하 그리고 최고의원을 선별하는 등

감시활동을 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과 발전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또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 품위 유지와 주민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며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집행부도 의회 승인 전 예산 집행, 보름 남긴 시집에서의 업무추진비 편성 등 행정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담보돼야 1등 광주시를 앞당길 수 있다”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존중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들이 의원평가제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결과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의원들의 집행부 감사·견제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켜 노조가 시청 간부들의 홍위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감시의 대상인 집행부가 의원을 되레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선인 유재신 의원은 “뽑아 준 시민도 아니고 감시 대상인 공무원들이 시민대표를 감사·평가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서정훈 사무처장은 “생똥맛고 당황이 된다”며 “광주시의회와 함께 광주시 집행부도 시민의 상식적 기대와 기준을 뒤집고 있다”며 고 평했다.

서 처장은 또 “집행부의 의회 무시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며 집행부가 감사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시의원의 평가를 위한 공무원노조와의 ‘연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팅민 ‘주택정책 토론회’ 19일 오후 논현동 건설서관에서 대한주택공사 주최 및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열린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효과 및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자를 제외한 좌석이 대부분 비어있다. /연합뉴스

‘대지임대부’ 실효성 없다 결론 내렸다 당정 ‘반값 아파트’ 맹공

‘반값아파트’ 공급시스템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잇따라 공격받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무 책임자인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이 ‘말장난일 뿐’이라며 공격의 표문을 연 데 이어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도 ‘실효성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를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결론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지임대부, 실효성 없다’ 잇단 공격=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비판하는 한편 여당에서 제기한 임대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차려 세웠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은 토지확보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임대조건

부 분양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우리당내 의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지임대부 분양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대조건부 분양이 제도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여당·정부 임대조건부 분양 짝 맞추기=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자’는 것으로 홍준표 의원이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론내리는 입장이었다.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지난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昃만 있고 당 없어 두번 졌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밝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지난 두 번의 대선 패배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집권할 준비가 돼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 전 대표는 대선 패배 4주년을 맞아 당 ‘참정치 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에서 왜 패배했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패배이자 죄인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고백하려 왔다. 지난 실패의 원인을 내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2002년 두 차례 대선

에서 이회창 후보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은 없었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캠프만 있었지 당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후보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정당 간 대결이 아닌 후보간 이미지 대결로만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당시 선대위원장으로서 인사권까지 후보에게 내줬지만 풀이켜 생각해 보면 잘못이었다. 당은 당이고 후보는 후보여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靑 “성탄절 사면 없다”

정부는 19일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비리 경제인 및 정치인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면문제와 관련, “경제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경우를 다 놓고, 부분사면도 검토했는데 이번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나 기준,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전남도지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세금을 체납해 18일 명단이 공개된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전남도에서 1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으며, 광주시에 1억4천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법무부에 김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19일 프랑스 파리에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야 새해 사자성어 ‘無心雲集’ ‘快刀亂麻’

교수신문이 올해 한국 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무심운집(無心雲集)’과 ‘쾌도난마(快刀亂麻)’를 꼽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9일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의 사자성어로 각각 ‘무심운집(無心雲集)’과 ‘쾌도난마(快刀亂麻)’를 선정,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 이상호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음을 비우면 구름이 모인다는 의미의 ‘무심운집’을 내년의 사자성어로 정했다”며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비워 구름이 모일 수 있는 1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제대로 챙기면서 정책,비전선거를 할 것”이라며 “내년의 사자성어가 ‘쾌도난마’(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 가닥을 자른다는 뜻)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접수대상 (선정기준)

- 졸업년도 : 2004년 12월 31일까지
- 졸업학교 : 2004년 12월 31일까지
- 학과명 : 국어, 한문, 국사, 국사학, 국사교육
- 학점 : 21점 이상

2. 접수기간 : 2006년 12월 20일 ~ 2007년 1월 10일

3. 시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삼성동) 한국교육개발원

4. 시험시간 : 2007년 1월 10일 (수) 오전 9시 ~ 오후 12시

5. 시험과목 : 국어, 한문, 국사, 국사학, 국사교육

6. 합격인원 : 10명

7. 합격자 발표 : 2007년 1월 15일

8. 수료기간 : 2007년 1월 15일 ~ 2007년 12월 31일

9. 수료비용 : 1,000,000원

10. 문의처 : 한국교육개발원 (02-550-1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움
한국최대중개사 배움

1, 2
11월

광주고시학원

제주도 여행 78,000원

여행지분할 무인카운터

특모모험 71,000원
폭풍투어 78,000원
제주도 여행 78,000원

064-744-1109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한의대 입학생 모집!

고등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 환영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